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of the Fa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by the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Job Flexibility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조교수 강희경*

Dept. of Social Welfare, Seoi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Kang, Hee Kyu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arenting stress of the fa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job flexibility. Then,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job flexibility on parenting stress were examined. The subjects consisted of 594 fa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results were show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stress was at a low level, but the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job flexibility were at moderate levels. Second, the fathers of high participation in child care showed lower parenting stress than low or moderate participation in child care. Finally, the fathers of high job flexibility felt lower parenting stress than low or moderate job flexibilit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of fathers), 학령기 자녀
(school-aged children),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근무조건 융통성(job flexibility)

* 교신저자 : 강희경(E-mail: khkyung@seoil.ac.kr)

1. 서 론

산업화 과정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는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닌 공유자로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거나, 최근 들어 이루어진 아버지에 대한 연구 역시 자녀양육 참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등한 공유자로서 자녀양육 실제에서 직면하는 부모역할 수행 상의 어려움에 대한 실증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근래 들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란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성혜, 1994). 그러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대다수(강희경, 1998; 김희조, 1994; 배인숙, 1993; 안범현, 2000; 이미향, 2002; 황경자, 2002)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김기현, 1998; 김기현, 2000; 김정애, 2001; 조선화, 2001)에서도 그 대상이 영·유아기와 같은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만을 초점에 맞추고 있어서, 가족생활의 발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가족생활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이전의 아버지 역할 외에 학부모됨이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하게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면, 일상적 자녀양육 활동에서 일부나마 힘을 더는 한편으로 새롭게 학부모역할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공식 교육체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아버지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강희경, 2003).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강희경(2003)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의 생활스트레스'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란 자녀의 학교 입학으로 인해 생겨난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정립, 자녀와 관련된 구체적인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대한 우려, 또래 관계 및 사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부모의 생활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 투자로 인해 부모가 개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양육 참여도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실태만을 보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배경 변인이나 다른 제반 독립 변인에 따른 효과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의 역할 참여도가 자녀양육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아버지들에게 긴 근로시간은 자녀양육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근무조건이 아버지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아버지의 부모 역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체계인 직장환경 변인 중에서도 근무조건 융통성(Job Flexibility)이 아버지 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연구 대상이 대부분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양육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어려움의 실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실태적 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경험하는 역할 수행 상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진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 참여도 및 근무조건 융통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 참여도 및 근무조건 융통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 역할 변화와 양육스트레스

가족구조가 핵가족화하고,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각 가정에서는 남성, 특히 아버지의 정서적 관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바르게 지도·감독하는 아버지에서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 친근하게 상호 작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된 것이다(이숙현, 2001).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조명을 위해 실행한 이영환(2002)의 연구에서는, Erikson의 인간발달 단계 중 7단계인 생산성 단계는 예술작품의 창조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 양육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1993년 Snarey가 제시한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개념을 채용하고 있다(이영환, 2002, 재인용).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이란 자녀양육의 단순한 참여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가족에게 잠재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물질적 자원이나 정신적 자원을 포함하는 생산적인 개념인 것이다(이영환, 2002).

중년기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정혜, 1998)에서도 대상자의 2/3이상이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고, 아버지역할, 남편역할,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자녀역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달라진 가족내 아버지의 역할을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있어 주변인에서 실제인으로 부각된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도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자녀양육 과정 중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연구들은 어머니만을 대상(김희조, 1994; 송주미, 1992)으로 하고 있거나, 장애자녀를 둔 부모(배인숙, 1993; 안범현, 2000; 이미향, 2002; 황경자, 2002)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보다 최근에 들어서는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기현, 1998; 김기현, 2000; 김정애, 2001; 조선휘, 2001)도 일부 발표되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김기현(1998)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65점으로 나타나서 자녀양육에서 지각하는 아버지의 스트레스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희경의 연구(1998)의 연구에서 그 평균 점수가 3.07점으로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과거보다는 실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녀양육상의 주된 담당자는 여성인 어머니의 몫인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 역시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하였듯이 아버지에 대한 연구 대다수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상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직면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작업은 아버지 역할 이해의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

과거의 아버지들에 비해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현대 아버지들이 가족 내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역할도 자녀의 발달과 함께 변화하는데,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미경(199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활동이 '가정 내 활동', '여가활동', '개인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를 위한 '생활지도'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목록을 시키거나 수유를 돕고, 기저귀를 보살피는 등 일상적 양육지원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에 비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고민거리를 상담하여 주고, 함께 놀아주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학교 행사에 참가하고, 자녀를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등 그 내용이 질적으로 확대된 양상임을 알 수가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자녀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유형 등과 같은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일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장애(199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그 참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윤서영·정옥분(1999)의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이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유형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전문·관리직일수록 자녀양육에의 역할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미경(1996)의 연구는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참여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아를 둔 아버지 집단과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집단이 유의하게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 양육행동을 비교한 강관해(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등과 같은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조건 융통성이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제, 시간제 근무, 휴가제도,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가족 간병휴가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근무시간의 융통성을 의미한다. 직장에서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보장되면, 경영자의 측면에서는 무단 결근을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취업 부모의 측면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근무조건 융통성은 근로자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Benin & Keith, 1995).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희경, 1998)의 연구에서는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평균 2.74점(1-5점 Likert 척도)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최근까지 이루어진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자녀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강희경, 1998)에서는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김리진·윤종희, 2000)에서는 취업모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을수록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때,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현대의 아버지들은 과거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일과 가족역할 중, 가족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한경혜, 1998), 아버지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다.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참여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Cohen(1986)과 Gerson(1993)은 직업환경에서의 근무조건 융통성의 결여가 역할수행의 방해요인임을 지적하였다(이숙현, 2001, 재인용). 즉, 근무조건 융통성이 적을수록 아버지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배가되므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Glass와 Camarigg(1993)의 연구에서는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 모두의 일과 가족 간의 역할 갈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다. Guelzow, Bird와 Koball(1991)의 연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취업모에게 있어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부모역할상의 스트레스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근무조건의 융통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취업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Neal, Chapman, Ingersol-Dayton, & Emlen, 1993). 이상의 논의를 두고 볼 때,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고,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 594명이다. 연구자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한 뒤 서울 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강북지역소재 2개교, 강남지역 소재 1개교, 총 3개교를 편의 표집하였다. 표집된 학교별로 각 학년(1-6학년)에서 한 개반씩 선정하여, 담임교사에게 협조를 의뢰한 뒤, 아동을 통해서 아버지용 질문지 700부를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질문지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은 2002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6일까지 였

다. 수거된 질문지는 총 610부였고, 이 중 기재가 부실한 16부를 삭제하여 총 59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연구대상자는 주로 30~40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0.73세(SD=4.06, 범위 28-60세)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졸이상이 67.2%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고학력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369.33만원(SD=199.06만, 범위 70~1500만원)이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이 절반 가까이 분포(47.9%)하였다. 대상자 중 부인이 취업한 사례는 30.4%였고, 비취업인 경우는 69.6%였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학령기 자녀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는 남아가 45.8%였고, 여아가 54.2%였다. 대상 자녀의 평균연령은 만9.92세(SD=1.68)였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6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둘째아가 31.6%였으며, 셋째이하인 경우는 4.2%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4¹⁾

변인	내 용	빈도(%)	변인	내 용	빈도(%)
연 령	30대 이하	223(37.5)	대상자녀의 성 별	남	272(45.8)
	40대 이상	371(62.5)		녀	322(54.2)
교육수준	고졸이하	195(32.8)	대상자녀의 연 령	10세미만	284(47.8)
	대졸이상	399(67.2)		10세이상	310(52.2)
직 업	전문·관리직	47(8.0)	가족의 수 입	200만원 이하	170(28.6)
	사무직	281(47.9)		201-300만원	158(26.6)
	판매·근로직	51(8.1)		301-400만원	108(18.2)
	자영업	122(20.8)		401-500만원	97(16.3)
	기타	86(14.7)		501만원 이상	61(10.3)

주1).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의 구성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행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강희경(2003)에 의해 개발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24문항이다. 본 도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자녀의 학령기 진입과 함께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 전환을 반영한 척도로,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요인

17 문항과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요인은 자녀의 학교입학으로 인해 생겨난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정립, 자녀와 관련된 구체적인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적응에의 우려, 또래 관계 및 사교육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시간과 에너지 투자로 인해 부모가 개인적 시간을 갖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등에 관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반영한다. 본 도구의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 α 계수는 0.88(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 0.90,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요인 0.72)로 나타나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양미경(1996)이 개발한 18문항 중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 1문항을 삭제한 17개 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학령기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가정내 활동’ 요인과 ‘여가활동’,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개인적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생활지도’ 요인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정내 활동’요인은 자녀의 잠자리를 살펴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여가활동’요인은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 관심거리를 함께 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개인적 상호작용’이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한 학부모회이나 행사에 참석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끝으로 ‘생활지도’ 요인은 아버지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지도하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측정 도구의 Cronbach α 계수가 0.87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근무조건 융통성은 Glass와 Camarigg(1993)의 근무조건의 수월성, 융통성 및 지원(Easy of Work, Flexibility and Support)에서 근무조건 융통성 요인 5문항을 채택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무조건 융통성의 Cronbach α 계수는 0.87로 산출되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주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을 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양육 참여도, 근무조건 융통성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지수, 종속적 t검증(paired sample t-test), 그리고 독립적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차이 검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자녀양육 참여도·근무조건 융통성의 일반적 경향

<표 2>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양육 참여도, 그리고 근무조건 융통성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준다. 표에 의하면,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Mean=2.70, SD=0.59, 1-5점 Likert척도).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김기현(1998)의 연구와 유사한 수치(Mean=2.65)로, 자녀양육과정에서 아버지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인 양육스트레스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포의 정상성을 나타내주는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지수는 각각 0.02, -0.14로 나타나서 비교적 정상분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 요인의 점수에 대한 종속적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 점수(Mean=2.92, SD=0.73)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Mean=2.16, SD=0.62)' 요인 점수보다 높았다. 즉, 본 연구대상자인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후 부가된 학부모 역할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양육역할로 인해 개인생활을 유지하는 데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들이 응답한 자녀양육 참여도는 1-4점 Likert척도에서 그 평균점수가 2.60(SD=0.40)점으로 분석되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포의 정상성을 검증하는 왜도와 첨도 지수 역시 각각 0.03과 0.90으로 산출되어 어느 정도 정상분포에 가까움을 보여주었다.

자녀양육 참여를 구성하는 4가지 하위 요인별 평균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종속적 t검증에서는 네 요인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보아주는 ‘가정 내 활동에 대한 참여도’ 요인(Mean=2.82, SD=0.4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녀를 훈육하고 지도하는 등의 ‘생활지도 참여도’ 요인(Mean=2.58, SD=0.56), 자녀와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의논의 상대가 되어주는 등의 ‘개인적 상호작용 참여도’ 요인(Mean=2.45, SD=0.48), 그리고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등의 ‘여가활동 참여도’ 요인(Mean=2.41, SD=0.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은 보통 정도(Mean=2.60, SD=0.59, 1-4점 Likert척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왜도 0.00, 첨도 0.03으로 나타나서 역시 정상분포임을 보여주었다.

<표 2>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 자녀양육 참여도 · 근무조건 융통성의 일반적 경향

N=594

변 인	내 용	평균(SD)	변 인	내 용	평균(SD)
양 육 스트레스	'학부모역할스트레스' 요인	2.92(0.73)	자녀양육 참여도	'가정내 활동' 요인	2.82(0.41)
	'부모의 생활스트레스'요인	2.16(0.62)		'여가활동' 요인	2.41(0.59)
	전체	2.70(0.59)		'개인적 상호작용' 요인	2.45(0.48)
근무조건 융통성	전체	2.60(0.59)		'생활지도' 요인	2.58(0.56)
				전체	2.60(0.40)

2.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 자녀양육 참여도 · 근무조건 융통성

<표 3>은 자녀와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제시되었듯이,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와 연령, 아버지의 연령, 직업 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도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고졸이하 집단이 대졸이상 집단보다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0, p<.01$).

<표 4>는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아버지의 직업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3>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N=594²⁾

변인	내용	n	평균(SD)	F(t)값	변인	내용	n	평균(SD)	F(t)값
자녀의 성별	남	272	64.30(14.21)	-.91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5	67.47(14.38)	3.10**
	녀	322	65.36(14.18)	(n.s)		대졸이상	399	63.61(13.94)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381	65.56(14.13)	1.41	父의 연령	30대이하	223	65.35(12.32)	.67
	둘째	188	63.87(14.18)	(n.s)		40대이상	371	64.59(15.21)	(n.s)
	셋째이하	25	62.04(14.95)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47	65.70(15.72)	1.22
자녀의 연령	10세미만	284	64.20(13.65)	-1.11		사무직	281	64.95(13.35)	(n.s)
	10세이상	310	65.49(14.66)	(n.s)		판매·근로직	51	67.67(13.86)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410	64.88(13.83)	.11		자영업	122	64.72(15.44)	
	취업모	179	64.73(14.76)	(n.s)		기타	86	62.37(13.82)	

주2)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n.s.=not significant **p<.01

<표 4>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N=594³⁾

변인	내용	n	평균(SD)	F(t)값	변인	내용	n	평균(SD)	F(t)값
자녀의 성별	남	271	41.66(6.08)	.22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	40.24(7.20)	-3.38***
	녀	316	41.54(6.59)	(n.s)		대졸이상	396	42.26(5.80)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375	41.47(6.03)	.21	父의 연령	30대이하	218	41.45(6.16)	-.44
	둘째	187	41.83(6.75)	(n.s)		40대이상	369	41.69(6.47)	(n.s)
	셋째이하	25	41.72(8.10)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47	42.30(6.51)	2.06
자녀의 연령	10세미만	281	42.17(6.26)	2.11*		사무직	278	42.02(5.81)	(n.s)
	10세이상	306	41.07(6.41)			판매·근로직	51	39.59(6.54)	
母의 취업유무	비취업모	406	41.46(6.27)	-.67		자영업	119	40.93(7.19)	
	취업모	176	41.85(6.54)	(n.s)		기타	85	41.61(6.45)	

주3)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n.s.=not significant *p<.05 ***p<.001

그러나, 자녀의 연령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자녀의 연령이 만10세 미만일 때(Mean=42.17, SD=6.26)가 만10세 이상인 경우(Mean=41.07, SD=6.41)보다 그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t=2.11, p<.05).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로 실행한 양미경(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나서, 대졸이상 집단(Mean=42.26, SD=5.80)이 고졸이하 집단(Mean=40.24, SD=7.20)보다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t=-3.38, p<.001$). 이는 고학력의 아버지가 자녀양육 역할 수행 정도가 높다는 윤서영과 정옥분(1999)의 연구보고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근무조건 융통성에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0.37$, not significant), 직업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F=9.99, p<.001$), 전문·관리직 집단(Mean=13.64, SD=3.39)과 자영업(Mean=13.82, SD=2.82), 기타 직업 집단(Mean=13.93, SD=2.95)이 사무직(Mean=12.45, SD=2.78)과 판매·근로직(Mean=11.80, SD=2.92)집단보다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참조).

<표 5>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

N=594⁴⁾

변 인	내 용	n	평균(SD)	F(t)값	변 인	내 용	n	평균(SD)	F(t)값
父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91	12.91(3.18)	-.37	父의 직업	전문·관리직	47	13.64(3.39)A5)	9.99***
	대졸이상	396	13.01(2.85)	(n.s)		사무직	278	12.45(2.78)B	
父의 연령	30대이하	218	12.79(3.05)	-1.14		판매·근로직	51	11.80(2.92)B	
	40대이상	369	13.09(2.91)	(n.s)		자영업	119	13.82(2.82)A	
						기타	85	13.93(2.95)A	

주4)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5)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n.s. = not significant *** $p<.001$

3.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 검증을 위하여, 먼저 자녀양육 참여도의 점수에 따른 빈도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33.3%, 하위 33.3% 분포선을 기준으로 높거나 중간, 그리고 낮은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6>은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F=4.58, p<.01$).

즉,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은 집단(Mean=62.33, SD=15.75)이 그 참여가 중간 정도(Mean=65.55, SD=12.42)이거나 낮은 집단(Mean=66.56, SD=14.29)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초기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결과는 자녀양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아버지 집단이 참여가 거의 없거나 중간 정도인 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행한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에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N=594

내 용	n	평균(SD)	F값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	183	62.33(15.75)B ⁶⁾	4.58**
자녀양육참여도가 중간인 집단	223	65.55(12.42)A	
자녀양육참여도가 낮은 집단	188	66.56(14.29)A	

주6)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1

4.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근무조건 융통성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33.3%, 하위 33.3% 분포선을 기준으로 높거나, 중간 그리고 낮은 세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85, p<.001).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Duncan 사후검증에서는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은 집단(Mean=62.47, SD=15.25)이 중간(Mean=66.74, SD=13.54)이거나 낮은 집단(Mean=65.60, SD=13.39)보다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표 7 참조).

<표 7> 아버지의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N=594

내 용	n	평균(SD)	F값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은 집단	204	62.47(15.25)B ⁷⁾	4.85***
근무조건 융통성이 중간인 집단	183	66.74(13.54)A	
근무조건 융통성이 낮은 집단	207	65.60(13.39)A	

주7)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01

본 결과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자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이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근무조건 융통성이 취업 부모 모두의 일과 가족 간의 역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Glass와 Camarigg(1993)의 연구, 그리고 Bird와 Koball(1991)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양육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각하는 어려움의 실태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더불어, 아버지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자녀양육 참여도와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 594명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자녀양육을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만족의 근원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스트레스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두 요인 중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가된 학부모 역할 수행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근무조건 융통성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효과만이 나타나서 고졸이하 집단이 대졸이상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양육 참여도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고학력일수록 그 참여도가 높아졌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 검증에서는 그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활

발한 자녀양육 역할 수행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근무조건 융통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서도 융통성이 높은 집단이 중간이거나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근무조건이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근무조건이 융통성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아버지가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인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요인 점수가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적 가치와 높은 학구열로 표현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자녀의 학교 입학과 더불어 부가되는 학부모라는 역할은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 있어 일상적인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학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자녀양육에의 몰입 및 관여가 아버지 역할수행을 원활하게 도와줌으로써,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아버지의 심리적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현대의 아버지들은 직장보다 가족 내 역할 수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가족 내 역할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에 더 많은 할애를 한다는 점과 일치된 결과(한경혜, 1998)로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근무조건 융통성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부모역할과 직업 역할을 대립이 아닌 병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공식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Davison와 Moore(1992)에 의하면, 취업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직장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모휴직제도, 근무조건의 융통성, 가족간호휴직제도가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보육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기관 알선 서비스, 보육비용 보조, 그리고 보육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를 직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조건 융통성이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관리직이나, 자영업 집단이 사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 집단보다 근무조건 융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근무조건의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측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근무조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학령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란해(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의 비교 : 직업관과 자녀관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7.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6-62.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정애(2001). 자녀성장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조(199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2), 21-37.
- 배인숙(1993).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범현(2000).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성격적응유형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와 상담 개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I :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 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윤서영·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미향(2002). 정신지체아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 교수·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이영환(2002).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과 미국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3(1), 139-151.
- 조선화(200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만족감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9세 전후 자녀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4(2), 41-57.

- 한경혜(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 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 황경자(2002). 중복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nin, M., & Keith, V. M. (1995). The Social Support of Employed African American and Anglo M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16(3), 275-297.
- Cohen, T. F. (1987). Remarking Men : Men's Experiences Becoming and Being Husbands and Father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conceptualizing Men's L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8, 57-77.
- Davison, J. K., & Moore, M. B. (1992). *Marriage and Family*. Dubuque : Wm C. Brown Publishers.
- Gerson, K.. (1993). *No Man's Land :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New York : Basic Books.
- Glass, J., & Camarigg, V. (1993). Gender, Parenthood, and Job-Family Compati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1), 131-151.
-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 Neal, M. D., Chapman, N. J., Ingersol-Dayton, B., & Emlen, A.C. (1993). *Balancing Work and Caregiving for Children, Adults, and Elders*. Newbury Park : SAGE.